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온라인 홍보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Online Public Relations on 'the Memory of the World'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Websites

김은진 (Eun-Jin Kim)**

구정화 (Joung Hwa Koo)***

초 록

본 연구는 인류의 자산이자 중요기록물인 세계기록유산의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연구로,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의 홍보의 의미를 정의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현황 분석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홍보활동 분석영역을 홍보내용, 홍보유형, 홍보매체으로 나누고 세부 홍보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였다. 도출된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온라인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1개 기관의 21개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첫째, 세계기록유산의 홍보내용에는 보존가치와 활용가치가 상호 강조되어야 하며 둘째, 이용자 세분화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관련 기록유산을 통합하거나 연결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하여 기록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끝으로, 세계기록유산 홍보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recommend strategies to promote PR activities of 'the Memory of the World(MoW)' on the websites.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online PRs of the MoW in S. Korea by developing the standards/elements for analysis. The research examined the two main concepts of MoW and extracted the three core standards/elements for evaluating current online PRs of MoW through reviewing earlier studies: contents of PRs, ways of PRs, and features of media. The research examined PR activities on the 21 websites of 11 institutions which manage MoW in South Korea. The research found the significant features of the online PRs and suggested detail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online PRs of MoW: first, it is required to emphasize the values of both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oW equall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s of MoW by using the way of 'user segmentation'. Third, it needs to develop the unit systems and/or services to integrate with related documentary heritages so that users can access documentary heritag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nally,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guidelines or/and manuals to conduct and promote the PRs of the MoW by providing specific directions and methods of publicities.

키워드: 세계기록유산, 홍보, 온라인홍보, 국제기록유산센터, 기록정보서비스
the Memory of the World(MoW), Public Relations(PR), online PRs,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ICDH),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 본 논문은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2022.02)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법제연구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kej97531@naver.com)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2년 11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22년 12월 2일 ■ 게재확정일자: 2022년 12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39(4), 159-189, 2022.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4.159>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기록유산’은 특정 나라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가 후대까지 계승 및 전수해야 하는 문화자산이자 중요기록물을 일컫는 말이다. 세계기록유산의 공식적인 명칭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MoW)’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부터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의 명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세계기록유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등재 및 지원, 법률 제정 등과 관련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첫 번째로 많은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¹⁾ 기록유산 분야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유네스코 직지 세계기록유산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2020년 6월 일부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0장의2(기록문화유산 기반 구축)’가 신설되었다. 특히, 이하 2항 제46조 3에서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ICDH)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20년 6월 설립이 확정되어 2022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기록유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구이자 유네스코 감독하에서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카테고리 2기관이다(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2020). 참고로, 카테고리 1기관은 유네스코 직할기관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유네스코가 직접 관여하는 반면, 카테고리 2기관은 유네스코 산하기관으로서 설립을 요청한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승인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설립되는 기관을 말한다(국가기록원, 2017). 즉, 이 센터는 전 세계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 보편적 접근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센터의 주요 기능을 세계기록유산 모니터링, 연구, 교육 그리고 홍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국가기록원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유산센터를 통해 세계기록유산까지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 특히 기록관리 분야에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중에게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혹 대중들이 세계기록유산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언론을 통해 접하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선정 결과로 인한 일시적인 자축에만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있다(박성진, 2008; 전소윤, 2014). 이는 대중들에게 세계기록유산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결국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기관들의 부진한 홍보 활동과도 직결된다. 세계기록유산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 분야(문화재 관리 및 박물관 영역) 연구에서는 항상 언급되어 왔으며 국제기

1) 유네스코 개황 공식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등재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KBS 이산가족찾기기록물(2015), 한국의 유교책판(2015), 조선왕조어보(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기록물(2017)을 포함하여 총 16건이다(외교부, 2020).

록유산센터의 주요 업무이자 기능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이 분산 소장 및 관리되고 있어 관련 정보서비스에 편차가 큰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홍보 방향과 업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계기록유산의 교육 및 홍보만을 중점으로 논의가 연구는 전무하며 홍보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고 관리하고 나아가 홍보하는 작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기초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국내 세계기록유산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현황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 조사하고, 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홍보방안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기록유산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메뉴얼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세계기록유산(MoW)의 목적과 각 기록유산의 가치에 따라 홍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관련 기관의 실제 홍보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이는 이후 국제기록유산센터를 비롯한 세계기록유산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 및 홍보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연구방법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국

내 세계기록유산의 온라인 홍보현황 분석에 앞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크게는 분석영역, 분석항목, 분석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영역은 세계기록유산의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홍보내용’)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홍보방법’)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문화재청, 2011). 또한 홍보방법은 다시 홍보내용이 전달되는 방법의 유형과 매체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분석영역을 ‘홍보내용’, ‘홍보유형’, ‘홍보매체’ 총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분석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내용을 도출하였다. 특별히 기존 세계기록유산의 온라인홍보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유산이 문화유산이자 기록물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화유산학과 기록학의 연구도 함께 참고하여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홍보매체에 해당하는 웹사이트와 관련된 홍보 분석은 세계기록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부재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연구까지 확장하여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 분석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현재 국내의 세계기록유산은 한 건의 기록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록물(집합체)도 등재되어 있어 모든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소장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명확하게 기관명을 파악할 수 있는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국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 및 관리하는 총 27개(중복 제외)의 기관 중에서도 온라인(웹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MoW)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하고 총 11개 기

관에 속하는 21개 웹사이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11개 기관이 운영하는 21개 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미리 설정한 분석 기준을 근거로 국내 세계기록유산 온라인 홍보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세계기록유산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홍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 및 문화유산 홍보’와 관련된 연구, ‘온라인홍보 분석 및 평가’라는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선행연구들로, 기존 연구는 기록유산을 문화재적 관점에서 보존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왔고, 문화유산의 훼손 및 손실에 대한 우려로 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이 시작되고, 기록물의 ‘이용’이라는 패러다임이 기록유산까지 확장되면서 비로소 정보서비스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성수(2005)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4종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기록유산의 디지털화(digitization)를 강조하였다. 박성진(2008)은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의미와 관련 기관의 활동을 현황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구축력 결여, 홍보 부족, 개념 모호성, 가치 불균형성, 선정범위 협소성, 기억 애매성으로 지적하였다. 제도

운용의 고도화 방안으로 협약 제정, 등재방법 홍보, 가치 균형성, 선정기준 보편성, 집합적 기억 경계성을 제안하였다. 이지은(2012)은 세계기록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통합적인 검색 사이트 구축을 강조하였다. 한국 세계기록유산 보존 및 관리 현황 파악뿐 아니라 국외의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분석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관리방안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구매, 원스톱 통합서비스 구축, 콘텐츠를 영역별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소윤(2014)은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각 소장 기관별 보존관리 및 관련 정보 제공 현황을 파악하였다.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의 접근 방법으로 홈페이지, 온라인 검색, 일반 서적, 교과서, 각종 콘텐츠, 전시 및 체험, 방송 및 홍보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층별 활용방안을 교육적 측면과 홍보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김귀배(2016)는 세계유산학의 관점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사항 즉, 법적 지위, 인적 체계 및 운영, 국제적 갈등과 분쟁으로 구분하여 제도적 한계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세계기록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박윤서(2017)는 세계기록유산의 개별적 관리와 제한적 접근은 세계기록유산의 활용에 한계를 가져오기에 통합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세계기록유산의 정보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통합 기록정보 서비스 모형을 위해 메타데이터 요소 및 연계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희정, 박태연, 양동민(2020)은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기록문화유산의 보존적 가치와 접근의 용이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유산 분야

의 과학기술 및 ICT 활용은 필수적인 미래전략 방안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상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세계기록유산(MoW) 사업의 제도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한국의 등재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결론적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세계기록유산의 홍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용촉진서비스 즉, 부가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세계기록유산의 홍보에 대한 부분은 세계기록유산 제도의 개선 및 활용방안의 한 부분으로 잠시 언급되었을 뿐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유네스코 및 문화유산으로 주제 범위를 확장하여 이와 관련된 홍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유네스코 및 문화유산의 홍보에 관한 연구들로, 이서현(2015)은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은 세계유산 PR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며, PR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여 세계유산 등재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국내는 '보존적 가치', 국외는 '활용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PR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한필원(2017)은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관련 법, 지침,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살펴보고, 홍보 및 활용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의 홍보와 활용의 대표적인 방법인 문화유산 관광이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점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온라인홍보 일부와 관련하여 문화재청(2011)은 문화재 관련 정책 홍보를 실행하기 위해 홍보 실무 지

침서를 발행하였다. 언론, 온라인, 광고, 홍보 제작물, 이벤트, 정부 보유 매체의 각 유형별 홍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위기관리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홍보의 방향성을 비교적 실무에 맞게 다룬 유일한 연구물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관련 연구들은 세계기록유산의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세계유산 및 문화재에 대한 홍보현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또한 홍보 매체 및 방법을 언론과 오프라인 중심으로만 다루었고, 홍보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현재 온라인 홍보현황 평가 및 관련 기준(척도)과 관련된 연구는 세계기록유산, 유네스코와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가 없다.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성능 및 기능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할 뿐, 온라인 홍보현황을 다룬 연구는 전무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의 주관 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에서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범위를 넓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를 마련하여 웹사이트 분석의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로 구체적으로, 한상필(2000)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분석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평가영역으로 접근성, 콘텐츠, 디자인, 상호작용성,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이정윤(2002)은 사회복지기관의 웹사이트를 활용한 홍보현황을 파악하기위해 평가 항목을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커넥션으로 구분하여 홍보 활동을 파악하였다. 이진희

(2006)는 비영리조직의 PR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사이트의 특성을 사용자 편의성, 정보의 유용성, 상호작용성, 신뢰성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기능별 항목과 세부사항을 통해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구성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주문(2010)은 PR매체로서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조직의 이미지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홍보요인을 상호작용성, 정보성, 이용편의성, 보안성으로 설정하고 웹사이트에 대한 태도와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윤희중(2011)은 경찰청 웹사이트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PR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분석항목을 크게 접근성, 콘텐츠, 상호작용,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최윤희(2014)는 청소년 관련 3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의 온라인 홍보현황을 정보제공, 접근기능, 디자인 기능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살펴보았다. 김은진, 구정화(2020)는 대학기록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홍보대상, 홍보내용, 홍보유형, 홍보매체로 구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비영리기관 웹사이트에서의 온라인 홍보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상호작용, 디자인 영역을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중요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로 웹사이트 매체 자체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홍보내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한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세계기록유산 연구에서는 주로 등

재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혹 기록유산의 홍보를 다루는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활용촉진서비스의 일부 항목으로 홍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세계기록유산의 홍보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기준을 도출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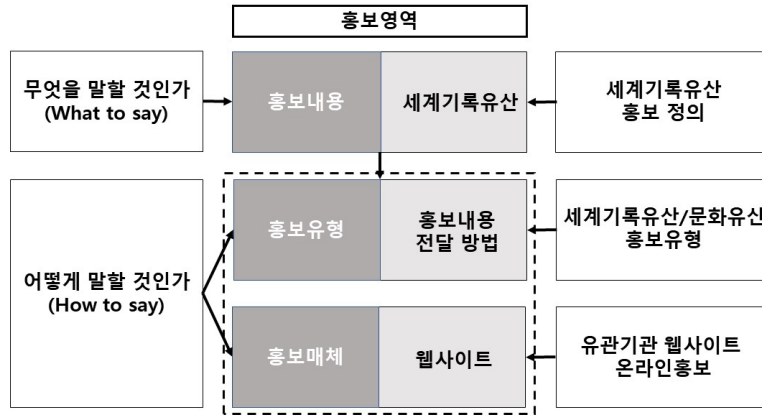
2. 분석 과정

2.1 분석기준 설정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청(2011)은 홍보의 기본 개념을 ‘무엇을 말할 것인가(what to say)’와 ‘어떻게 말할 것인가(how to say)’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온라인홍보 또한 (1)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홍보내용’과 (2) 홍보내용을 전달되는 ‘홍보유형(방법)’ 그리고 (3) 홍보내용을 담고 있는 ‘홍보매체(웹사이트)’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참고).

2.2 분석항목 및 내용 도출

각 영역별 홍보현황을 분석을 위한 분석항목과 내용을 도출하였다(<표 1> 참고). 각 분석영역별 분석항목 및 세부항목과 내용을 도출하게 된 과정과 근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영역 도출 과정 도식화

〈표 1〉 분석영역별 항목 및 세부항목 도출 결과

분석영역	분석항목	세부항목	참고문헌
홍보내용	사업	소개	문화재청(2011), 박옥남(2019), 박윤서(2017), 염지수(2018), 이서현(2015)
	보존가치	등재	
		보존환경 등재정보	
	활용가치	소장정보	
		기록물특성	
검색 활용			
홍보유형 (방법)	전시	안내(진행정보) ²⁾ 종류(형태) ³⁾	전소윤(2014), 한희정, 박태연, 양동민(2020), UNESCO(2002)
	체험/교육	안내 종류	
	행사	안내 종류	
	출판	안내 종류	
	학술	안내 종류	
홍보매체 (웹사이트)	접근성	외부	김은진, 구정화(2020), 윤희중(2011), 이정윤(2002), 이주문(2010), 이진희(2006), 최윤희(2014), 한상필(2000)
		내부	
	상호작용 디자인	소통 상징	

2) '안내' 항목에서는 각 홍보유형의 진행과 관련한 주제 및 일정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전달(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3) '종류' 항목에서는 각 홍보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특징(종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본다.

2.2.1 홍보내용

세계기록유산(MoW)의 어떤 내용을 알릴 것인지는 세계기록유산 홍보 정의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홍보 정의는 '세계기록유산의 목적과 기록유산의 가치를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리된다(이서현, 2015;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하 UNESCO), 2002). 즉, 세계기록유산의 홍보내용은 첫째, MoW 사업 자체를 알리는 것과 둘째, 기록유산(Heritage)의 가치 즉,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보존적 가치 및 활용적 가치를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문화재청, 2011; 박옥남, 2019; 박운서, 2017; 염지수, 2018; 이서현, 2015; 전소윤, 2014; UNESCO, 2002). 세계기록유산은 활용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활용은 보존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두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활용은 보존의 적극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접근 및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인지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록유산의 보호와 증진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의 홍보내용은 크게 'MoW 사업', 기록유산이 가진 '보존가치', '활용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홍보내용 영역의 분석항목으로 도출하였다.

각 분석항목의 세부항목과 그 내용으로 우선, '사업'은 세계기록유산(MoW) 사업 자체에 대한 소개와 등재사항을 알려야 한다. '소개' 항목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시작한 유네스코와 세계기록유산의 배경 그리고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재' 항목에서는 어떤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등재대상, 등재기준, 등재절차, 등재의 의 및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유산은 '보존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활용가치'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존가치'는 기록유산의 영구적인 존재적 접근성을 보장과 관련한 사항이다(UNESCO, 2002). 즉, 기록유산이 훼손되거나 손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존환경과 등재(보존이유)에 대해 알려야 한다. 따라서 '보존환경' 항목에서는 기록유산이 소장된 보존장소, 보존상태를 알려야 한다. '등재정보' 항목에서는 소장하는 기록유산의 등재명칭, 등재의의, 등재절차를 알림으로써 기록유산이 지닌 보존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표 2> 참고).

또한, '활용적 가치'는 기록유산의 존재를 알 권리와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항을 의미한다(UNESCO, 2002). 즉, 기록유산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장정보'와 '기록물 특성'을 제공해야 하며, 직접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소장정보' 항목에서는 소장 및 관리기관, 기록유산 보유현황, 기록유산 컬렉션, 수집 및 기증 정보, 정보공개 및 비공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록물 특성' 항목에서는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생산자 및 생산기관, 생산년도, 보존기간, 내용 주제, 기록물 유형, 분류, 형태, 수량, 언어에 대해 최소한 기술해야 한다(박운서, 2017). '검색' 항목에서는 검색가이드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검색을 돕고, 통합 키워드 검색, 상세 검색 필터, 카테고리 검색(주제별·매체별·출처별)의 검색도구와 주제명표목 및 시소러스,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인기검색어를 통해 기록유산을

〈표 2〉 기록유산 보존가치 및 활용가치 항목 도출 과정

가치	세부 항목	UNESCO (2002)	문화재청 (2011)	전소윤 (2014)	이서현 (2015)	박윤서 (2017)	염지수 (2018)	박옥남 (2019)
보존	관리	○	○	○		○	○	○
	등재	○			○	○		
	보존	○	○	○	○			
	자료	○	○			○	○	○
	관리	○				○		
	교류				○	○		
활용	검색	○		○			○	○
	활용	○	○			○		○
	콘텐츠	○	○		○		○	○

실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용’ 항목에서는 검색을 통해 찾은 기록유산에 대해 기록물 원문 및 전문, 번역 및 해제, 온라인 열람 및 뷰어, 열람 신청 및 접수, 다운로드 및 출력, 전송 및 공유, 연관 기록물 정보 제공, 기록물 연관 하이퍼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유산을 찾은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록유산의 저작권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법적인 권리도 알려야 한다. 이처럼 홍보내용을 평가할 항목과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2.2 홍보유형(방법) 영역

홍보유형(방법)은 홍보내용의 전달 방법(‘어떻게 말할 것인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존의 세계기록유산과 문화기관 관련 연구에서 언급되는 홍보유형 항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문화재청, 2011; 박옥남, 2019; 박윤서, 2017; 염지수, 2018; 전소윤, 2014; 한희정, 박태연, 양동민, 2020; UNESCO, 2002).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홍보유형은 전시, 교육, 체험, 견학, 행사, 출판, 연구라는 공통된 유형

(방법)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표 4〉 참고).

결론적으로, 홍보유형(방법) 영역에서는 ‘전시’, ‘체험/교육’, ‘행사’, ‘출판’, ‘연구’ 영역을 분석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홍보유형을 5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유형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각 유형 중에서 핵심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각 분석항목의 세부항목과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첫째, ‘전시’는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고, 주로 보존과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오던 기록유산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홍보방법으로 여겨왔다. 특별히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신기술의 융합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홍보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안내(진행정보)’ 항목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의 주제 및 일정을 알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전시 메뉴에서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종류(형태)’ 항목에서는 진행되는 전시가 기본

〈표 3〉 홍보내용 영역 분석 기준

영역	항목	세부항목	내용
홍보내용	사업	소개	- 유네스코 - 세계기록유산 배경 - 세계기록유산 목적 및 목표
		등재	- 등재대상 - 등재기준 - 등재절차 - 등재의의 및 효과
	보존가치	보존환경	- 보존장소 - 보존상태
		등재	- 등재명칭 - 등재의의 - 등재절차
	활용가치	소장정보	- 소장 및 관리기관 - 기록유산 보유현황 - 기록유산 컬렉션 - 수집 및 기증 정보 - 정보공개 및 비공개 정보
		기록물 특성	- 생산자 및 생산기관 - 생산년도 - 보존기간 - 내용 주제 - 기록물 유형 - 기록물 분류 - 기록물 형태 - 기록물 수량 - 기록물 언어
		검색	- 검색도구 - 검색가이드 - 통합 키워드 검색 - 상세 검색 필터 - 카테고리 검색 - 주제명표목 및 시소러스 -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 인기검색어
		활용	- 기록물 원문 및 전문 - 기록물 번역 및 해제 - 기록물 온라인 열람 및 뷰어 - 기록물 열람 신청 및 접수 - 기록물 다운로드 및 출력 - 기록물 전송 및 공유 - 연관 기록물 정보 - 기록물 연관 하이퍼링크 - 저작권

〈표 4〉 홍보유형 영역의 항목 도출 과정

구분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UNESCO (2002)	전소운 (2014)	박윤서 (2017)	한희정 외 (2020)	염지수 (2018)	문화재청 (2011)	박옥남 (2019)
전시	○	○		○		○	○
교육	○	○		○	○		○
체험		○		○		○	○
견학		○	○			○	○
행사	○		○	○		○	
공연				○			○
출판	○	○		○	○		○
연구		○		○	○		○
언론	○	○					

적으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그 성격이 기관전시(소장기관), 행사전시(지역 및 기념), 주제전시(기록물), 기능전시(업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이혜원, 2007).

둘째, ‘체험과 교육’은 의미적으로는 상이하지만, 체험이 교육이 될 수 있고 교육이 일종의 체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둘 다 이용자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홍보방법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항목으로 범주화하였다. ‘안내’ 항목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교육의 주제와 일정을 알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체험/교육 메뉴에서 알리고 있는지 확인한다. ‘종류’ 항목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견학/투어, 강연, 주로 일회적인 프로그램 성격으로 진행되는 문화교실, 혹은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다회적으로 진행되는 아카데미 형식인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행사’는 주로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특정 기간 진행되는 일종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안내’ 항목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주제 및 일정을 알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행사 메뉴에서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종류’ 항목은 공모전, 공연/축제 등 그 행사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출판’은 간행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관에서 출판을 홍보방법으로 사용하는 목적과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출판은 전시, 체험 및 교육, 행사, 학술에 해당하는 다른 홍보유형의 보조 도구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다른 홍보유형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내’ 항목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출판물의 목록을 알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메인페이지, 공지사항, 출판 메뉴에서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출판물의 온라인 원문 열람,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종류’ 항목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출판물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소책자/리플릿, 도록, 소식지/뉴스레터, 연구저널, 총서, 보도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표 5〉 홍보유형 영역 분석 기준

영역	항목	세부항목	내용
홍보유형	전시	안내	- 오프라인 주제 및 일정 - 온라인 주제 및 일정 - 메인페이지에서 안내 - 공지사항에서 안내 - 전시 메뉴 따로 구성
		종류	- 기관(소장기관) 전시 - 행사(지역, 기념) 전시 - 주제(기록물) 전시 - 기능(업무) 전시
	체험/교육	안내	- 오프라인 주제 및 일정 - 온라인 주제 및 일정 - 메인페이지에서 안내 - 공지사항에서 안내 - 체험 메뉴 따로 구성
		종류	- 견학/투어 - 강연 - 문화교실 - 아카데미
	행사	안내	- 오프라인 주제 및 일정 - 온라인 주제 및 일정 - 메인페이지에서 안내 - 공지사항에서 안내 - 행사 메뉴 따로 구성
		종류	- 공모전 - 공연/축제
	출판	안내	- 출판물 목록 - 메인페이지에서 안내 - 공지사항에서 안내 - 출판 메뉴 따로 구성 - 온라인 출판물 원문 열람 - 온라인 출판물 다운로드 및 출력
		종류	- 소책자/리플릿 - 도록 - 소식지/뉴스레터 - 연구저널 - 총서 - 보도자료
	학술	안내	- 오프라인 주제 및 일정 - 온라인 주제 및 일정 - 메인페이지에서 안내 - 공지사항에서 안내 - 학술 메뉴 따로 구성
		종류	- 학술대회/세미나/포럼 - 교육지원서비스 - 연구지원서비스

마지막으로, '학술'은 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기관 대다수가 연구원 즉, 학술기관이라는 점에서 교육과 다른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내' 항목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의 주제 및 일정을 알리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종류' 항목에서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학술대회/세미나/포럼, 특정 이용자들의 개별 신청을 통해 제공되는 연구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2.2.3 홍보매체 영역

홍보내용과 홍보유형이 실제로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온라인 공간 즉, 웹사이트 평가항목을 홍보매체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 세계기록유산 및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홍보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그 범위를 넓혀 비영리기관에서의 웹사이트 온라인홍보 연구를 통해 그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표 6>과 같이 공통적인 항목으로 콘텐츠, 접근성, 상호작용, 디자인이 선정되었다(김은진, 구정화, 2020; 윤희중, 2011; 이정운, 2002; 이주문, 2010; 이진희, 2006; 최윤희, 2014; 한상필, 2000). 그중에서 콘텐츠는 미디어나 플랫

폼에 담기는 '내용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상 '홍보내용' 항목에 해당되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홍보매체 영역에서의 항목은 '접근성', '상호작용', '디자인'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접근성'은 웹사이트에 대해 어떠한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용자가 온라인 환경에서 기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접근과 기관 웹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정보(혹은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접근성을 크게 '외부 접근'과 '내부 접근'으로 나누어 외부접근성을 평가할 '외부' 항목에서는 주요 포털에서 기관명으로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한지, 웹사이트 주소와 기관명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연관 기관인 유네스코 웹사이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 여러 웹사이트 운영의 경우 소장기관 메인 웹사이트, 동일 기록유산이 타기관 웹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외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 내부 접근성 즉 '내부' 항목에서는 웹사이

<표 6> 비영리기관의 웹사이트 온라인홍보 평가항목

	한상필 (2000)	이정운 (2002)	이진희 (2006)	이주문 (2010)	윤희중 (2011)	최윤희 (2014)	김은진, 구정화 (2020)
접근성	○		○	○	○	○	○
콘텐츠	○	○	○	○	○	○	○
디자인	○				○	○	○
상호작용성	○	○	○	○	○		○
연계성	○	○					
신뢰성			○	○			
후원		○					

트 내부에서 site map, index, search의 기능이 있고, 메인페이지 이동이 가능하며, 로그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외국어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Web Accessibility, WA 마크)를 지원 여부도 확인한다.

둘째, '상호작용'은 기관이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웹사이트가 홍보매체로서 가지는 강점은 비대면 쌍방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용자와 얼마만큼 잘 소통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홍보효과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게시판 운영, 새소식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또한, 온라

인홍보 안에서도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에서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어플리케이션(앱)과 SNS를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좀 더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자동 전송 서비스, 피드백 창구, 연락방법 기재, 오류사항 건의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셋째, '디자인'은 웹사이트가 온라인에서 세계 기록유산을 홍보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유네스코 및 세계기록유산 공식 로고를 통해 기관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의 심미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전체 웹사이트의 색, 아이콘, 그림, 레이아웃들의 통일감 여부만을 다루고자 한다. 이처럼 홍보매체를 평가할 항목과 내용들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홍보매체 영역 분석 기준

영역	항목	세부항목	내용
홍보매체	접근성	외부	- 주요 포탈 '기관명'으로 접속 - 웹 주소와 기관 이름의 관련 - 유네스코 웹사이트로 접속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로 접속 - 소장기관 메인 웹사이트로 접속 - 동일 기록유산 타 기관 웹사이트로 접속
		내부	- site map - index - search - 메인페이지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서비스 이용 - 외국어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상호작용	소통	- 게시판(자유, FAQ, 질문) 운영 - 새로운 소식 지속적(6개월)으로 유지 - 기관 운영 어플 - 기관 운영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 자동 전송 서비스(메일링리스트, RMS, RSS) - 피드백 창구(온라인 설문조사) - 연락방법(웹 질문서식, 전자메일, 실시간 참고질의서비스) - 오류사항 건의
	디자인	상징	- 유네스코 공식 로고 - 세계기록유산 공식 로고 - 기관 웹사이트 색, 아이콘, 그림, 레이아웃 통일감

2.3 분석대상 선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6건을 소장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웹사이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27개(중복 제외) 기관이다(〈표 8〉 참고).

그중에서도 세계기록유산(MoW)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상에서 기관의 기록유산 소장 여부와 해당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온라인 홍보현황 파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16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⁴⁾ 따라서, 국내 웹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총 11개 기관의 21개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9〉 참고).

각 웹사이트의 홍보활동을 분석한 일자에는 1차(2021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와 2차(2021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로 나뉘어 총 12일간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작업은 앞서 도출한 분석기준 즉, 총 3개 영역 11개 항목 113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 결과

국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11개 기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표에는 11개 기관을 편의상 알파벳(A~K)으로 표기하였고, 각 알파벳에 해

당되는 기관명은 A: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B: 국가기록원, C: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D: 국립중앙도서관, E: 광주광역시, F: 5·18기념재단, G: 현충사, H: 한국방송공사, I: 한국국학진흥원, J: 국립고궁박물관, K: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이다. 각 영역별(홍보내용, 홍보유형, 홍보매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홍보내용

홍보내용은 세계기록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최소한 전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세계기록유산(MoW) 사업과 각각의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보존가치 및 활용가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고,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첫째, 세계기록유산 ‘사업’에 있어 유네스코 기관에 대한 소개는 대부분 다루고 있었고, 절반 정도의 기관이 세계기록유산의 배경과 목적 및 목표도 소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등재’와 관련하여 등재대상, 기준, 절차,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안내하는 곳은 한 곳(현충사)뿐이었다. 이는 기관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한 사업 자체에 대해 알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존가치에 있어 ‘보존환경’ 장소는 다섯 곳에서 소개하고 있었으나 보존상태 즉, 기록유산이 어떤 보존처리를 받았고 현재 어떤 보존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곳도 알리

4)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16기관은 다음과 같다: 간송미술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해인사, 육군본부, 국회도서관, 미국 국무성, 국방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개발조사연구소, 한국금융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연구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표 8〉 국내 세계기록유산 소장 및 관리기관 현황

등재년도	국내 세계기록유산	소장 및 관리기관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미술관
	조선왕조실록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가기록원
2001년	직지심체요절	프랑스 국립도서관
	승정원일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7년	조선왕조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해인사
2009년	동의보감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
2011년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
		육군본부
		5·18기념재단
		국회도서관
		미국 국무성 국방부
2013년	난중일기	현충사
	새마을운동기록물	국가기록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015년	KBS이산가족찾기기록물	한국방송공사(KBS)
		국가기록원 한국개발조사연구소
2017년	한국의 유교책판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립고궁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한국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기타	
	조선통신사기록물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기타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표 9〉 세계기록유산 온라인 홍보현황 분석대상 웹사이트(21개) 선정

기관명	웹사이트명	관련 기록유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s://kyu.snu.ac.kr/)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계 일성록 조선통신사기록물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index.jsp)	
	규장각 역사문화콘텐츠 (http://kyudb.snu.ac.kr/contents/main.do)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KBS이산가족찾기기록물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https://theme.archives.go.kr/next/silloc/viewMain.do)	조선왕조실록
	5·18 민주화운동 (https://theme.archives.go.kr/next/518/viewMain.do)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새마을운동 기록물 (https://theme.archives.go.kr/next/semaul2016/viewMain.do)	새마을운동기록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www.aks.ac.kr/index.do)	조선왕조의계 동의보감
	디지털장서각 (https://jsg.aks.ac.kr/)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archive.aks.ac.kr/)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동의보감 조선통신사기록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https://www.518archives.go.kr/)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https://518.org/nmain.php)	광주민주화운동기록물
현충사	현충사 관리소 (https://hcs.cha.go.kr/cha/idx/SubIndex.do?mn=HCS)	난중일기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한국방송공사(KBS)	KBS이산가족찾기 (http://family.kbsarchive.com/)	KBS이산가족찾기기록물
한국국학진흥원	한국국학진흥원 (https://www.koreastudy.or.kr/)	한국의 유교책판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유교문화 (https://multi.ugyo.net/index.do)	
	소장자료 검색 (https://search.koreastudy.or.kr/)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main.do)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국채보상운동 (http://www.gukchae.com/)	국채보상운동기록물

〈표 10〉 홍보내용 분석 결과

영역	항목	세부항목	내용	A	B	C	D	E	F	G	H	I	J	K	
홍보 내용	사업	소개	유네스코		○			○	○	○	○	○		○	
			세계기록유산 배경		○			○		○		○		○	
			세계기록유산 목적/목표		○			○		○		○		○	
		등재	등재대상								○				○
			등재기준							○		○			
			등재절차									○	○		
	보존 가치	보존환경	보존장소			○	○		○	○	○				
			보존상태												
		등재	등재명칭		○	○	○	○	○	○	○	○	○	○	○
			등재의의			○	○		○	○	○	○	○	○	○
	활용 가치	소장정보	소장 및 관리기관		○	○	○	○	○	○	○	○	○	○	○
			기록유산 보유현황		○	○	○		○	○	○	○	○	○	○
			기록유산 컬렉션		○	○		○	○	○	○		○	○	○
			수집/기증 정보		○	○	○		○	○		○	○	○	○
			정보공개/비공개 정보			○	○		○				○	○	
기록물 특성		생산자/생산기관		○	○	○	○	○	○	○	○	○	○	○	
		생산년도		○	○	○	○	○	○	○	○	○	○	○	
		보존기간			○										
		내용 주제		○	○	○	○	○		○	○	○	○	○	
		기록물 유형		○	○	○	○	○	○	○	○	○	○	○	
		기록물 분류		○	○	○	○	○		○	○	○	○	○	
		기록물 형태		○	○	○	○	○	○	○	○	○	○	○	
검색		기록물 수량		○	○	○	○	○	○	○	○	○	○	○	
		기록물 언어		○		○								○	
		검색도구		○	○	○	○	○	○	○	○	○	○	○	
		검색가이드		○	○	○		○		○		○		○	
		통합 키워드 검색		○	○	○	○	○	○	○	○	○	○	○	
		상세 검색 필터		○	○	○	○			○		○		○	
		카테고리 검색		○	○	○	○		○	○		○	○	○	
활용		주제명표목/시소러스							○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										
		인기검색어				○									
		기록물 원문/전문		○	○	○	○	○	○	○	○	○	○	○	
		기록물 번역/해제		○	○	○	○			○			○	○	
	기록물 온라인 열람/뷰어		○	○	○	○	○	○	○	○	○	○	○		
	기록물 열람 신청/접수		○	○				○				○			
	기록물 다운로드/출력		○	○	○	○	○				○		○		
연관 가치	기록물 전송/공유							○			○				
	연관 기록물 정보		○					○				○			
	기록물 연관 하이퍼링크		○						○				○		
	저작권					○	○	○				○	○		

지 않았다. 이는 보존이 관리적 측면에 속하므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필수 내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등재'에 있어 공식적인 등재명칭을 모두 소개하고 있었으며, 소장하는 기록유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두 곳을 빼고 모두 설명하고 있었다. 나아가 각 기록유산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곳은 총 네 곳(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한국방송공사,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으로 기관 공식 웹사이트와는 별개로 추가 자체 웹사이트(콘텐츠)를 만들어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활용가치의 '소장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든 기관이 알리고 있었으며, 기록유산 보유현황 및 기록유산 컬렉션에 대한 내용도 한 곳만 빼고 모두 소개하고 있었다. 수집 및 기증 정보는 두 곳을 빼고 모두 제공하였으나, 정보 공개와 비공개정보는 오직 다섯 곳만 제공하고 있었다. '기록물 특성' 즉, 기록물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기본 내용은 모두 제공하고 있었으며, 내용 주제, 기록물 분류 또는 수량까지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나 기록물 언어는 기술사항으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었다. '검색'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통합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상세 검색 필터 및 카테고리 검색도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제공하고 있었다. 검색가이드는 이용자가 기록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일곱 곳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주제명 표목 및 시소러스,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인기 검색어는 오직 한 기관에서만 가능했다. 검색을

통해 찾은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과 전문 그리고 열람 및 뷰어는 모든 기관이 가능했으나 기록물에 대해 번역 및 해제를 제공하는 곳은 일곱 기관이었다. 그러나, 일곱 곳 중에서 언어가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어 별도의 번역 및 해제가 필요하지 않은 기록물(광주민주화운동 및 이산가족찾기 기록물)을 소장하는 기관이 세 곳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문서를 소장하는 기관들은 대부분 번역 및 해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열람이 가능할 경우 대부분은 뷰어를 통해 기록물을 다운로드 및 출력이 가능했다. 기록물 열람 신청 및 접수는 네 곳, 전송 및 공유와 연관 기록물 정보, 연관 하이퍼링크는 두 곳만 제공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서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물의 법적인 부분 즉,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다섯 기관으로 기록물의 저작권은 활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감안할 때 다른 기관에서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2 홍보유형

홍보유형은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홍보내용이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방법으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우선, 모든 기관이 세계기록유산을 홍보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보유형은 '전시'였다. 전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전시 주제 및 일정에 대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주로 안내되거나 메인 페이지, 전시 메뉴를 따로 구성하여 안내되고

있었다. 특별히 온라인 전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전시를 가상현실(VR)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시의 종류는 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기관에 대한 기관전시, 소장 지역 및 기록유산의 등재나 생산 특별 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전시, 기록유산이 지닌 특징과 가치에 대해 알리는 주제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기록유산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업무나 활동에 대한 기능전시는 두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세계기록유산을 홍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기획자)과 이용자가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험 및 교육’은 이용자에게 소통을 통한 일종의 직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홍보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곳(한국방송공사)만 제외하고는 체험과 교육 유형을 모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주제 및 일정과 함께 제공하고 있었으며, 주로 공지사항과 메인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절반 정도의 기관만이 체험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메뉴로 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체험에는 주로 기관 견학과 기록유산과 관련한 장소 투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에 대해서는 기록유산 관련 전문가의 강연이 다수 이루고 있었고,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 일정 기간 다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은 다섯 곳이 있었다. 이러한 체험과 교육은 이용자에게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주로 특정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

되는 ‘행사’는 절반 이상인 일곱 기관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걸쳐 진행하고 있었다. 관련 사항은 공지사항이나 메인페이지에서 안내되고 있었으며, 메뉴를 따로 구성한 곳은 세 곳이었다. 행사의 종류는 이용자의 직접 참여를 장려하는 공모전과 불특정 다수가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남길 수 있어 홍보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 바로 ‘출판’이다. 두 곳(규장각, 한국방송공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계기록유산 관련 내용을 출판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출판하는 목록은 모두 기재하고 있었으며, 공지사항 및 메인페이지 그리고 출판 메뉴를 따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온라인 출판물의 경우 일곱 기관이 원문 열람이 가능하고, 다운로드와 출력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다. 출판물의 종류는 전시를 진행할 때 보조도구이자 결과물로 발행되는 도록이 제일 많았으며, 소책자/리플릿, 연구서 및 저널, 총서가 네 곳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웹사이트에서 제공함으로써 언론보도와 관련한 내용도 전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록유산은 단순 문화유산의 의미를 넘어서 학술 및 연구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보방법에 있어 ‘학술’ 유형도 여덟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진행되는 학술관련 정보의 주제 및 일정은 주로 공지사항에서 하나의 행사의 개념으로 알리고 있었으며, 메인페이지나 학술 메뉴를 따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관도 있었다. 학술의 종류

네스코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한 곳은 한 곳(5·18기념재단) 뿐이었다. 동일 등재 기록유산을 소장하는 타 기관의 웹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은 세 기관뿐이었다. 웹사이트에 접속 후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접근'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Index와 Search는 모든 기관이 제공하고 있었으나, Site map은 아홉 곳에서만 가능했다. 메인페이지로 이동과 로그인 없이 서비스 이용은 모든 기관이 가능했다. 반면, 외국어 서비스 지원은 한 곳(현충사)만 제외하고 모두 기본적으로 영어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불어 일곱개 국어까지도 지원하고 있었다.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충족하여 WA 마크를 기재하는 곳은 네 곳뿐이었다.

둘째, 기관과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상호작용'을 평가해 보았다. 한 곳(한국방송공사)만 제외하고 모든 기관이 게시판과 새소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웹사이트를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앱을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뿐이었고, SNS는 한 곳(규장각)만 제외하고 모두 운영하고 있었다. SNS 종류로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용자에게 신청을 받아 자동 전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두 곳만이 존재하였다.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 창구를 마련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기관도 네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기관

이 연락처 및 이메일을 기재함으로써 이용자와 소통할 방법을 명시하고 있었다.

끝으로, 기관 웹사이트의 디자인은 이용자에게 기관 또는 제공 정보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웹사이트에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한 이미지 즉, 로고 사용은 중요한 상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공식 로고를 보여준 곳은 세 곳뿐이었고, 세계기록유산 공식 로고는 네 기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한 곳(국가기록원)만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웹사이트의 색, 아이콘, 그림, 레이아웃에 있어 통일감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종합평가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 결과를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3〉참고). 첫째, 홍보내용에서 세계기록유산의 사업 및 등재정보에 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부족했다. 또한, 보존가치에 있어 보존환경과 등재절차, 활용가치에 있어 검색을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으며, 검색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정보가 부족하므로 두 가치에 대한 부분이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홍보유형에서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전시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었고 그 외의 교육 및 행사, 출판, 학술에 대해서는 다소 저조하고 모두 기존에 해 오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홍보방법의 다양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관련 서비스 개발의 절대적인 부족은 결국 이용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가

〈표 13〉 국내 세계기록유산 웹사이트 온라인 홍보현황 종합결과

영역	종합분석
홍보내용	- 사업 목적을 알리기 위한 내용 보충 필요 - 보존환경 및 등재절차에 대한 보존가치 전달 필요 - 기록물 법적 사항, 검색도구 추가기능, 기록물 연관 정보를 통해 활용가치의 극대화 필요
홍보유형	- 홍보방법이 대부분 전시 위주로 진행 - 홍보방법 및 서비스 개발의 다양화가 필요 - 홍보 관련 정보의 웹사이트 노출 필요
홍보매체	- 관련 웹사이트 및 관련 기록물 링크 연결 필요 - 세계기록유산 상징 로고 사용 필요

장 큰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홍보매체인 웹사이트의 쌍방향 소통 및 다양한 미디어 정보 제공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는 관련 정보들의 링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의 관련 기록물 정보조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릴 수 있는 상징 로고도 대부분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함이 조사 가운데 드러났다.

4. 결론

4.1 국내 세계기록유산 온라인홍보 개선 방안

4.1.1 보존가치와 활용가치의 상호 강조 필요

세계기록유산은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으며, 홍보에서도 두 가치가 모두

공존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문화유산과 기록물은 활용적 측면보다는 보존 및 관리적 측면이 강조되어왔다. 이는 활용이 문화유산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존의 목적은 결국 활용에 있으며, 활용이 보존의 적극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이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문화재청,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홍보내용 영역의 항목으로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모두 포함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웹사이트에서 소장정보, 기록물 특성, 검색, 활용에 초점을 두고 활용가치에 대한 부분은 비교적 잘 알려지고 있으나 오히려 기록유산이 보존환경 및 등재에 대한 보존가치는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보존가치는 이용자보다는 관리자에게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보존장소와 보존상태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기록유산의 보존가치에 대한 관심은 소장기관의 더 주의 깊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등재정보의 제공은 해당 기록유산이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절차를 통해 실제 등재까지 이루어졌는지 알리는 것으로 세계기록유산을

왜 보존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더불어 세계기록유산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등재대상, 기준, 절차, 의의 및 효과까지 함께 소개한다면 차후에 다른 기록유산의 등재신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가치도 함께 알림으로써 본질적으로 해당 기록유산이 어떤 기록물이며 왜 보존이 필요한지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활용가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검색 도구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검색해야 할지 몰라 접근조차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도움' 항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기록유산의 절반 정도가 고문서라는 점에서 이용자는 현대 문서보다 해석이 어렵고, 보존을 강조하고 있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안된다(염지수, 2018). 이러한 접근을 도울 수 있도록 기록물의 계층과 맥락을 보여주며 용어를 제어해주는 주제명표목 및 시소러스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기록유산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검색어 전체가 생각나지 않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으며, 인기검색어는 이용자에게 생각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이용자의 접근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관련 기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색을 통해 접근한 기록유산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불가피한 제한의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용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유산에 대한 저작

권 및 법적 제한에 관한 내용 또한 명시해야 한다. 이처럼 기록유산의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홍보내용에도 포함될 때 비로소 기록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1.2 이용자 세분화에 따른 서비스 지원 필요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홍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홍보대상인 이용자를 세분화하고(user segmentation),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기록유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세분화하기에는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현재는 일반적인 홍보조차 미흡하여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홍보방법이 주로 불특정 다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세계기록유산의 서비스와 홍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보다는 기존의 서비스 활동과 홍보방법이 답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차후에 필수적으로 이용자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정보행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국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하는 기관의 성격은 학술기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재단, 사업회 등 다양하므로, 특성화 서비스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학습 및 연구지원을 또 어떤 기관은 출판에 어떤 기관은 교류 및 협력 행사에 강점을 두고 서비스와 홍보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소장하는 세계

기록유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다른 긍정적인 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용자 세분화 작업은 기록물의 접근에 다양한(신체적, 법적, 심리적, 지적, 물리적 등) 이유로 접근에 장애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특정 서비스 개발과 홍보를 통한 접근점의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궁극적으로 유네스코의 설립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4.1.3 관련 기록유산 통합 및 연결 구축 필요

웹사이트의 장점 중 하나는 여러 형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의 다른 콘텐츠 및 웹사이트로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온라인홍보의 강점을 살릴 수 있으나, 실제 기관에서는 이 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 상황은 한 기관에서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계기록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규장각, 국가기록원, 장서각, 현충사, 한국국학진흥원)이 다수이고, 이를 기관 공식사이트, 검색사이트, 콘텐츠사이트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이트를 따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한 기록유산에 대해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오히려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 웹사이트의 특징과 제공 정보를 명시하는 방법이나 국가기록원처럼 기록유산 명칭만 알면 웹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록유산별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소장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타 웹사이트를 상호 연결해주는 것도 현 상황에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세계기록유산 사업 자체에 대한 정보는 유네스코 공식 웹사이트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동일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는 타 소장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직접 기록유산에 대해 더 넓고 깊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혹 링크를 연결하는 것마저도 어렵다면, 관련 타 기관의 정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기록유산을 웹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웹사이트를 통합하여 알려주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필수적이다.

4.1.4 홍보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마련 필요

유네스코는 'Memory of the World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UNESCO, 2002)라는 공식 매뉴얼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전반적인 관리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업과 등재 관련 내용 비중이 높고, 홍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정의나 목적보다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이 만들어진 시기는 2002년으로 2000년대 초반 환경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기록물 디지털화와 홍보환경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유네스코의 공식 매뉴얼을 참고하여 세계기록유산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새로운 홍보지침 및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하나의 세계기록유산은 다수의 기관이 소장 및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각 기관에 따라 홍보활동의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홍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 및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유산별로 홍보의 격차도 커지게 된다. 물론, 소장기관이 하나라고 해서 홍보가 활성화되고, 소장기관이 다수라고 해서 덜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세계기록유산의 소장기관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에서 홍보활동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용자는 해당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차단된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16건의 국내 세계기록유산 중에서 직지심체요절, 훈민정음 해례본, 승정원일기,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난중일기, 한국의 유교책판, 조선왕실과 어보 8건의 기록유산은 모두 한 기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직지심체요절은 해외 기관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은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온라인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한 정보를 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해당기관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자연스럽게 해당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세계기록유산 홍보 관련 최소한의 지침 및 매뉴얼의 부재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모든 기록유산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관련 기록유산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 많은 한계를 초래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비대면 시대 혹은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홍보내용이 포함된 공식 매뉴얼

을 개정하고 홍보활동만을 담고 있는 기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4.2 요약 및 후속연구

본 연구는 세계기록유산의 홍보 그중에서도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홍보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내 세계기록유산의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평가기준과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온라인 홍보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국내 세계기록유산을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11개 기관을 선정하여 홍보현황을 조사하고 각 홍보 영역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하여 홍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매뉴얼과 지침도 전무한 상황에서 온라인 홍보현황을 평가할 항목들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실제 홍보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기초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몇 제한점들이 있다. 우선, 현황 분석항목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는데 그 분석항목을 구체적인 척도(3점 혹은 5점 척도 등)로 개발되지 못하고 현황 유무만을 파악하게 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홍보매체인 웹사이트의 자체 기능과 성능은 홍보효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만으로 큰 연구주제가 될 수 있어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나아가, 웹사이트 이외에 다양한 온라인 환경과 매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홍보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또한, 제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성실히 홍보활동을 펼쳤을 때 실제적인 파급효과 즉 홍보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즉, 분석항목의 타당성(validity) 평가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 홍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함에 있어 국내 연구 및 사례들만을 분석했다. 외국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조사와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국내 사례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면, 더욱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홍보지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제한점들은 한 연구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방대한 내용들과 영역인 관계로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상기하고 보충하

여 온라인 홍보현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홍보활동이 이용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한 연관성 조사와 개발한 항목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조사 연구도 함께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상에서의 홍보활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거나 혹은 가이드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 및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까지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후속연구들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중요성과 기록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제 세계기록유산의 웹사이트 온라인홍보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여 추후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7).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유치와 전망. 대전: 국가기록원.
- 김귀배 (2016). 세계기록유산사업의 제도적 기반과 쟁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성수 (2005).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보존 현황 및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5(2), 27-48.
<https://doi.org/10.14404/JKSARM.2005.5.2.027>
- 김은진, 구정화 (2020). 국내 대학기록관의 온라인홍보 활동 분석 및 평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54(4), 283-3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171>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대전: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11). 문화재청인을 위한 전략적 홍보 가이드라인. 대전: 문화재청.
- 박성진 (200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제도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옥남 (2019).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19(1), 195-224.
<http://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박윤서 (2017).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의 통합 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염지수 (2018). 고문서 관리기관의 웹 기록정보서비스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외교부 (2020). 2020 유네스코 개황. 서울: 외교부.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2020).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워크북. 청주: 국제기록유산센터.
- 윤희중 (2011). 경찰청 웹사이트를 활용한 PR 내용분석: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6(1), 97-125. <http://doi.org/10.16961/polips.2011.6.1.97>
- 이서현 (2015). 유네스코 세계유산 PR실태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제주, 태즈메이니아, 하와이의 지역일간지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이정운 (2002). 사회복지기관 홍보도구로서의 웹 사이트 활용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주문 (2010). PR 매체로서 공공기관 웹 사이트가 조직의 이미지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지은 (2012).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에 관한 서지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진희 (2006). 비영리조직의 PR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웹 사이트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원 (2007).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소윤 (2014). 한국 세계기록유산 관련 정보의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최윤희 (2014). 청소년 관련 3개 공공기관의 온라인 PR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한상필 (2000).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 홍보 개선방안 연구: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4(2), 170-208.
- 한필원 (2017). 한국 세계유산의 보호·관리 및 홍보·활용 현황과 과제. 마한·백제문화, 30, 65-78.
- 한희정, 박태연, 양동민 (2020). 한국 기록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3(1), 99-108.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2002). Memory of the World General Guidelines to Safeguard Documentary Heritage.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i, YoonHee (2014). Studies of Online PR Analysis and Its Improvement Plan on 3 Youth Public Service Website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7). Guidebook for the Use of Cultural Properties.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1). Strategic Public Relations Guidelines fo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Han, Huijeong, Park, Tae-Yeon, & Yang, Dong-min (202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written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Digital Culture Archives*, 3(1), 99-108.
- Han, Phil-Won (2017). The practices and issues i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and use of world heritages in Korea. *The Research Institute for the Mahan-Baekje Culture*, 30, 65-78.
- Han, SangPhil (200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public rel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internet homepages: focusing on the case analysis of homepag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4(2), 170-208.
- Jeon, SoYoon (2014). Measure for Utilizing Data of Korea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im, Eun-Jin & Koo, Joung Hwa (2020). Evaluation and analysis of online public relation activities in university archives: Focusing on the websi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83-3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171>
- Kim, Kwibae (2016).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Issues Relating to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Sung-Soo (2005). Preservation of world records heritage in Korea and further regist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5(2), 27-48. <https://doi.org/10.14404/JKSARM.2005.5.2.027>
- Lee, Hyewon (2007). A Study of Method to Activate Exhibition Programme in Archive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Lee, JiEun (2012). Bibliographical Study for the Memory of the World of Korea.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Jin-Hee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ebsites as a Medium for Public Relations Communication of NPOs.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Lee, JungYoon (2002). Analysis about the Practical Use of Web Sites as a Tool for the Public Rel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Lee, Seo-hyeon (2015).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 Practices for the UNESCO World Heritage: Focused on the Local News Coverage in Jeju, Tasmania, and Hawaii. Doctoral

- disser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Lee, Zoo-Moon (2010). Effects of Public Organization's Website as PR Media on the Image and Evaluation of the Organization: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0). Overview of UNESCO 2020. Seou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Archives (2017). Attraction and prospect of UNESCO International Center for Archives and Heritage(ICDH). Daejeon: National Archives.
- Park, OkNam (2019).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95-224.
<http://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Park, SungJin (2008). Elevating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m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Park, Youn-Suh (2017). A Study 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Method for UNESCO Memory of the World in Korea.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2020). UNESCO world heritage workbook. Cheongju: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UNESCO ICDH).
- Yeom, Ji-su (2018). Research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Web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old Document Archives.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Yoon, Hee-Jung (2011). A content analysis of the public relations reported in the website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focusing on the emergency management. The Police Science Journal, 6(1), 97-125. <http://doi.org/10.16961/polips.2011.6.1.97>